

# 생성형 AI는 화자인가?

Is Generative AI a Speaker?

박광길\*

**국문요약** 본 연구는 생성형 AI가 자연어를 통해 인간과 소통하는 현실에 주목하여, 화용론의 관점에서 생성형 AI에게 화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화용론에서의 화자 개념과 구성 요건을 검토하고, 발화 의도, 맥락 인식, 청자 지향성, 상호작용 수행 능력의 네 가지 요건을 도출하였다. 이어 생성형 AI의 언어 생성 방식과 특성, 국어학 및 인접 분야의 관련 논의를 검토한 뒤,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을 발화 주체성과 청자 경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성형 AI는 인간과 동일한 존재론적 화자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기능적 의도의 차원에서 방향성을 지닌 발화를 수행하고, 맥락 인식, 청자 지향성, 상호작용 수행의 측면에서도 화자 기능을 일정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자 역시 생성형 AI의 응답을 자신을 향한 발화로 경험한다는 점에서,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은 수신자의 측면에서도 일정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고는 생성형 AI에 대한 화자 설정이 일정한 조건 아래 제한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고, 이를 '기능적 발화 주체'로 규정하였다.

**핵심어** 생성형 AI, 화자, 대규모 언어 모델, 화용론, 기능적 발화 주체, 기능적 화자, 발화 의도, 청자 경험

- 차례**
1. 서론
  2. 화용론적 화자의 개념과 생성형 AI 언어의 특성
  3. 생성형 AI의 언어와 지위에 대한 선행 연구
  4.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 수행 검토
  5. 결론

AI 모델들과는 다르게 텍스트 생성, 번역, 요약, 질의응답 등 다양한 작업에서 인간 수준의 자연스러운 언어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인간 고유의 언어와의 경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자연어를 바탕으로 문장의 구성, 대화 맥락에 따른 답변의 출력과 사용자의 발화에 반응하는 언어 수행 양상은 인간의 언어와 표면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것에서 나아가, 인간이 생성형 AI와 정서적 교류를 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형성되어온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화가 '인간과 생성형 AI 사이'의 대화라는 범주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성형 AI를 단순한 기술적 도구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언어 행위의 주체로서 화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1. 서론

본 연구는 생성형 AI가 자연어를 통해 인간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생성형 AI를 화자로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22년 11월 Chat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AI는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생성형 AI는 이전의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성형 AI에게 화용론의 범주에서 ‘화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용론에서 화자는 언어 사용의 핵심 주체로서 발화 행위의 의도성, 맥락 인식, 청자 지향성, 그리고 상호작용 수행 능력을 갖춘 존재로 개념화된다. 본 논의에서는 생성형 AI가 이러한 요건들을 어느 수준에서 충족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과 범위 안에서 유효한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화용론적 화자의 개념과 생성형 AI 언어의 특성

생성형 AI의 화자 지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하나는 화용론에서 화자를 어떠한 존재로 정의하는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생성형 AI의 언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되며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의 문제이다. 전자가 화자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면, 후자는 그 기준을 적용할 대상의 언어적 성격을 밝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화용론에서의 화자 개념과 구성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이어 생성형 AI의 언어 생성 방식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2.1. 화용론에서의 화자의 개념과 구성 요건

화용론은 언어 체계 자체보다 언어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해석되는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화용론의 범주는 연구자마다 다소 다르게 제시되어 왔지만, ‘언어 사용자’, ‘맥락’, ‘발화’라는 세 요소에 수렴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한다.<sup>1</sup> 이 세 요소는 서로 독립된 항목이라기보다 언어 사용이라는 동일한 현상을 다른

층위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화용론은 문장이나 표현의 구조만을 다루는 분야가 아니라,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였는가를 다루는 분야로 정의된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언어 사용자’이다. 화용론에서 언어 사용자는 단순히 언어를 산출하거나 수용하는 단위가 아닌 발화의 생산과 해석에 관여하는 참여자를 포괄한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는 화자와 청자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만 화용론에서 발화의 성립 조건을 검토할 때에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청자를 전제하고 발화를 조직하며 수행하는 주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수행 주체를 ‘화자’로 보고 화자의 기능과 정의에 대해 검토한다. 즉, 화자는 언어 사용자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 가운데 발화를 구성하고 수행하는 중심적 행위자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화자 개념은 발화의 성격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화용론에서 발화는 단순한 언어 표현과 구별되는 분석 단위이다. 발화의 의미에는 화행적 의미가 더해지는데, 여기에는 화자와 청자의 태도, 둘 사이의 관계,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 발화 장면의 조건 등이 포함된다. 결국 동일한 언어 형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대를 향해 사용되는가에 따라 의미와 기능이 달라진다. 화용론의 논의 대상은 언어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맥락 속에서 실현된 언어 사용이기 때문이다.

이때 발화는 단순한 언어 산출물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방향성을 지닌 행위로 이해된다.<sup>2</sup>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용론이 화자의 실제 내면적 의식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용론은 화자의 심리 상태 자체를 직접 관찰하기보다, 그 의도와 목적이 발화 속에서 어떠한 언어적 형식으로 표현되고,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1 윤석민, 「화용론의 위상 정립을 위한 몇 가지 문제」, 『한글』 313, 한글학회, 2016, 52~53쪽.

2 이병규, 「담화 기능과 그 체계」, 『반교어문연구』 41, 반교어문학회, 2015, 242~244쪽.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청자에게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화용론에서 말하는 화자의 의도는 화자의 실제 심리 상태라기보다, 발화의 수행과 해석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사소통적 기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발화는 화자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청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담화는 특정한 발신자와 수신자, 특정한 장면이 전제되고, 발신자의 전달 의도가 수신자에게 수용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이는 발화가 본질적으로 청자 지향적인 행위임을 의미한다. 화자는 단지 말을 생산하는 존재가 아니라, 청자의 해석 가능성과 반응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발화를 조직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나아가 발화는 고립된 일회적 표현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흐름 속에서 실현된다. 발화의 의미는 청자의 반응, 해석, 후속 발화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며, 그 과정에서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지속하거나 조정한다. 따라서 화자의 역할은 일방적인 언어 산출에 머무르지 않고,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점에서 화용론적 화자는 단순히 언어를 표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맥락을 반영하고 청자를 고려하며 상호작용 속에서 발화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자로 확장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화용론에서 화자의 구성 요건은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화자는 전달 의도를 지닌 채 발화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발화의 의도를 전제한다. 둘째, 화자의 발화는 시간적·공간적·사회적 맥락을 인식하고 반영한다는 점에서 맥락 인식을 전제한다. 셋째, 화자의 발화는 특정 청자를 전제하고 그에 맞게 조직된다는 점에서 청자 지향성을 전제한다. 넷째, 발화는 화자와 청자의 대화 속에서 조정되고 유지된다는 점에서 상호작용 수행 능력을 요구한다.

이처럼 화자는 ‘의도’, ‘맥락’, ‘청자’, ‘상호작용’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통해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요건은 서로 독립된 항목이 아니라, 발화의 성립과 해석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기능하는 요소들이다. 화자는 의도를 지닌 채 특정한 맥락 속에서 특정 청자를 향해 발화를 수행하며, 그 발화는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조정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용론에서 화자란 단순한 언어 산출자가 아니라, 의도와 맥락, 청자, 상호작용의 조건 속에서 발화를 성립시키는 주체로 정의할 수 있다.

## 2.2. 생성형 AI의 언어 생성 방식과 특성

생성형 AI는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인간의 언어와 유사한 언어를 산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재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생성형 AI는 대체로 트랜스포머 기반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핵심 기술로 삼으며, 주어진 문맥에서 다음에 나타날 토큰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산출한다. 이때 생성되는 문장은 사전에 규정된 규칙을 기계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아닌, 말뭉치와 같은 방대한 텍스트 자료에 나타난 언어 패턴을 바탕으로 특정 맥락에서 후행할 가능성이 높은 표현을 순차적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언어 출력은 표면적으로 인간 언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생성 원리에서는 본질적으로 통계적 예측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언어와 구별된다.

이와 같은 생성형 AI의 언어 생성은 구체적으로 사전 학습과 미세 조정의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사전 학습 단계에서 언어 모델은 대규모 말뭉치를 바탕으로 단어의 결합 양상, 문법적 제약, 의미적 연쇄, 문맥적 연결 관계 등을 학습한다. 이 과정은 주어진 입력에 정답을 주고 학습시키는 방식이라기보다, 텍스트 자체의 연쇄 속에서 다음 단어의 출현 확률을 반복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 결과 언어 모델은 자연어에 내재한 의미, 문법, 문맥의 패턴을 넓은 범위에서 포착하게 된다. 이어지는 미세 조정 단계에서는 특정 과제에 적합한 출력이 가

3 박철우, 「화용론의 현재와 미래」, 『어문논집』 62, 중앙어문학회, 2015, 110쪽.

능하도록 후속 조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때 모범 답변을 함께 제시하는 지도 학습과 인간의 피드백 기반의 강화 학습을 진행한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이 지금의 ChatGPT나 Gemini 등과 같은 대화형 챗봇의 형태로 구현될 경우, 생성형 AI의 언어 출력은 더욱 실제 대화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대화형 챗봇은 사용자의 입력을 분석하여 현재의 질문, 요구, 문맥을 반영한 응답을 생성하고, 이어지는 후속 입력을 다시 새로운 문맥으로 삼아 다음 응답을 산출한다. 이로써 생성형 AI는 앞선 대화 이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면서 연속적인 응답을 구성할 수 있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표현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의 표면적 양상은 어디까지나 이미 학습되고 조정된 언어 모델이 입력된 문맥에 따라 확률적으로 응답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대화형 모델은 생성형 AI가 마치 대화 참여자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것이 곧 인간과 동일한 의미의 발화 주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가 산출하는 언어는 인간이 작성한 언어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지금의 생성형 AI가 생성하는 언어는 문장 간의 연결과 의미 전개가 비교적 자연스럽고, 응답의 형식 또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언어와 유사한 수준을 드러낸다. 통일성과 응집성은 물론, 특정 상황에 부합하는 어조와 내용의 조정, 기존 텍스트 자료의 흔적을 반영하는 상호텍스트성 역시 생성형 AI의 출력에서 쉽게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생성형 AI의 언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언어 행위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생성형 AI 언어 출력의 한계는 특히 정보성의 차원에서 분명해진다. 생성형 AI는 자신이 산출한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독자적으로 판별한 뒤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맥락에서 그럴듯한 언어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때문에 외형상 자연스럽고 설득

력 있어 보이는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생성형 AI의 텍스트는 언어적 자연스러움과 정보의 진실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어적으로 산출된 정보에 책임감을 가지는 인간 발화와 차별점을 가진다.

이상을 종합하면, 생성형 AI의 언어는 통일성, 응집성, 상황 적합성 등에서 인간 언어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대화 환경에서는 맥락을 반영한 연속적 응답까지 산출한다. 그러나 그 생성 원리는 다음 토큰 예측에 기반한 확률적 계산과 사전 학습, 미세 조정의 기술적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보의 진리치를 독자적으로 판별하지 못하고, 출력된 정보의 책임 주체 또한 단일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결국 생성형 AI의 언어는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발화와 유사하지만, 생성 원리와 책임 구조에서는 인간의 언어 행위와 다른 층위에 놓여 있다.

### 3. 생성형 AI의 언어와 지위에 대한 선행 연구

본 장에서는 생성형 AI의 언어와 지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생성형 AI의 화자 설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기존 논의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생성형 AI에 관한 논의는 이미 국어학 내부에서도 텍스트 분석, 쓰기 수행, 언어 연구 방법론 등의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접 분야에서도 논의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들은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어학 분야의 연구와 인접 분야의 선행 연구를 구분하여 검토하여, 생성형 AI의 언어 수행과 지위 설정이 각각 어떠한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 3.1. 국어학 분야의 생성형 AI 언어 연구

국어학 및 인접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언어를 직접 다루는 논의는 2022년 말 ChatGPT의 등장과 대중화를 계기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초기 연구들은 생성형 AI가 산출하는 언어가 인간의 언어와 외형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언어 교육과 글쓰기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주로 논의하였다. 이후 점차 생성형 AI의 언어를 어떠한 언어학적 범주로 이해할 것인지, 인간의 쓰기 능력이나 주체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나아가 생성된 결과물의 저자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등으로 확장되었다.

먼저 텍스트 분석의 관점에서는 생성형 AI가 산출한 결과물을 인간 텍스트와 비교 가능한 언어학적 대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오규설은 ChatGPT가 생성한 텍스트를 텍스트성 개념을 통해 분석하여, 인공 텍스트가 통일성, 응집성, 상황성, 상호텍스트성 등 여러 기준을 외형적으로 충족하면서도 정보성의 차원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고 보았다.<sup>4</sup> 이 논의의 의의는 생성형 AI의 산출물을 단순한 기계 출력이 아니라 언어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었다는 데 있으며, 동시에 생성형 AI의 언어가 인간 텍스트와 유사한 형식을 보이더라도 정보의 진리치 판단과 같은 측면에서는 차이를 지닌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생성형 AI의 텍스트를 언어학적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분석의 관점이 결과물인 텍스트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언어 행위의 수행 구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한데로의 연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5</sup> 이 연구는 ChatGPT, Bard, CLOVA X를 대상으로 생

성형 AI가 단어를 해석하고 형성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생성형 AI를 단순한 언어 처리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화자'이자 '단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청자'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국어학 내부에서 생성형 AI를 언어 수행의 주체, 더 나아가 '생성 AI 화자'로 명명한 논의의 시작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형태론적 단어 형성의 수행 주체에 가깝고, 발화 의도나 청자 지향성, 상호작용 수행 능력과 같은 화용론적 요건을 기준으로 정교하게 검토된 개념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어서 쓰기 능력과 주체성의 관점에서는 생성형 AI가 인간의 글쓰기 수행을 어느 정도까지 재현할 수 있는지가 주된 논점이었다. 장성민은 생성형 AI가 다양한 쓰기 양식을 높은 수준으로 산출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수행은 확률적 모방에 의한 것이지 쓰기 주체의 자율적 능력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sup>6</sup> 또한 권태현 역시 생성형 AI의 글쓰기가 응집성과 일관성 면에서는 인간의 결과물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나, 독창성과 창의성에서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sup>7</sup> 이들 논의는 생성형 AI가 인간과 비슷한 문장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인간과 동등한 쓰기 주체인가 하는 문제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생성형 AI의 언어 수행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인간과 동일한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박광길의 연구는 생성형 AI의 언어를 국어학의 구체적 연구 방법론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sup>8</sup> 이 연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어 연구 과

4 오규설, 「생성형 인공지능이 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ChatGPT는 국어교육의 도구인가, 위협인가」, 『국어교육연구』 82, 국어교육학회, 2023, 143~189쪽.

5 정한데로, 「'생성 AI 화자'의 단어 형성: ChatGPT, Bard, CLOVA X를 대상으로」, 『한말연구』 64, 한말연구학회, 2023, 1~26쪽.

6 장성민, 「생성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쓰기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가: 포스트 챗GPT 시대의 작문 평가 담론을 위한 예비적 논의」, 『국어교육』 181, 한국어교육학회, 2023, 119~160쪽.

7 권태현,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와 작문 교육의 방향 탐색: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83, 한민족문화학회, 2023, 137~174쪽.

8 박광길,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어 연구 과제에 대한 고찰」,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 14,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3, 133~165쪽.

제를 검토하면서, 생성형 AI가 신어 자료를 추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에 맞는 신어를 생성하거나 순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언어 연구의 실제 수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생성형 AI가 단지 완성된 텍스트를 산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일정한 언어적 수행 능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역시 신어 연구 방법론과 활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생성형 AI의 언어를 발화 행위나 화자 기능의 문제로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기존 연구들은 생성형 AI의 언어를 텍스트 수준의 특성, 쓰기 수행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언어 산출의 주체성 문제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왔다. 특히 국어학 내부에서도 생성형 AI를 단어 형성의 화자, 혹은 실제 언어 연구 수행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처럼 파악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은 형태론적 단어 형성, 신어 연구 방법론, 텍스트의 결과물과 쓰기 수행의 문제와 같이 부분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을 뿐, 생성형 AI가 실제 대화에서 화용론적 화자의 기능을 수행하는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3.2. 생성형 AI의 지위 설정에 대한 융복합적 연구

생성형 AI의 지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국어학이나 언어학 외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는 AI를 인간과 구별되는 단순한 도구로만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일정한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설정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인공지능 철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의의 흐름이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된다. 김형주는 국내 AI 철학 연구가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지능과 의식, 존재론적 성격을 묻는 심리철학적 논의로,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 권리, 윤리적 기준을 다루는 실천윤리적 논의로 전개되어 왔다고 정리한 바 있다.<sup>9</sup> 이

는 AI의 지위 문제 자체가 언어학의 범위 밖의 존재론과 윤리학의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AI의 지위를 더 이상 '인간과 도구'라는 이분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목광수는 기존의 인격 개념이 합리성이나 의식 같은 내재적 속성을 기준으로 작동해왔기 때문에 AI와 같은 비인간 존재의 지위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보고, 사회적 관계와 인정의 구조 속에서 지위를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sup>10</sup>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AI와 관련하여 인간만이 주체이고 기계는 객체라는 고정적인 구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지연의 논의도 같은 방향에서 참고할 만하다.<sup>11</sup> 이 연구는 AI의 윤리적 지위를 인간과의 경쟁이나 대체 관계로만 이해하는 대신, 인간과 AI가 상호작용과 사회적 학습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특히 ChatGPT 기반 언어모델의 발전이 인간 사회의 참여와 긴밀히 연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AI의 지위 역시 고정된 속성이라기보다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생성형 AI의 지위를 단순한 기술적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지위의 문제로 설정한다.

이처럼 인접 분야의 연구들은 각기 다른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되면서도, 공통적으로 생성형 AI를 단순한 도구로만 환원하기 어려운 존재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즉, 급변하는 사회에서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생성형 AI가 특히 대규모

149~170쪽.

<sup>10</sup> 목광수,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 인정에 근거한 모델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90, 새한철학회, 2017, 187~211쪽.

<sup>11</sup> 김지연,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지위: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서 어울리기」, 『사회와 이론』 46, 한국이론사회학회, 2023, 89~131쪽.

<sup>9</sup> 김형주, 「인공지능 철학 국내연구 동향 분석: 인공지능 철학의 성장점에서」,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 중앙대 인공지능인문학연구소, 2018,

언어모델에 기반하여 자연스러운 언어를 산출하고, 대화 맥락에 따라 응답을 조정하며, 상호작용적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 청자, 맥락의 상호작용 구조 속에서 생성형 AI의 언어 행위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국어학 이외의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지위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해 왔다면, 본 연구는 특히 생성형 AI의 자연스러운 언어 수행 능력에 주목하여, 화자 기능의 차원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4.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 수행 검토

본 장에서는 기술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생성형 AI가 화용론의 관점에서 실제로 화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고찰한다. 앞서 화용론에서의 화자 개념과 구성 요건을 정리하고, 생성형 AI 언어의 생성 방식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분석의 기준과 대상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어학 및 인접 분야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생성형 AI의 언어와 지위에 관한 논의가 이미 다양한 층위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서 생성형 AI가 화자 기능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1. 발화 의도와 기능적 주체성의 검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화용론에서 화자는 발화 의도, 맥락 인식, 청자 지향성, 상호작용 수행 능력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생성형 AI의 화자 지위를 검토한다는 것은 결국 이 네 가지 요건이 생성형 AI의 언어 행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이 중 맥락 인식, 청자 지향성, 상호작용 수행 능력은 생성형 AI의 실제 작동 양상을 통해 비

교적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발화 의도는 화자의 내면 상태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펴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발화 주체성을 검토하는 데에는 생성형 AI의 의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실제로 생성형 AI를 둘러싼 주체성 논의는 대체로 '생성형 AI의 의도'와 관련하여 이견을 보인다. 한쪽에서는 생성형 AI의 언어 산출이 결국 확률적 토큰 예측의 결과일 뿐이므로, 인간 화자와 같은 의도는 부재한다고 본다. 생성형 AI가 아무리 자연스럽고 정교한 텍스트를 산출하더라도, 그것은 학습 데이터의 통계적 패턴을 재구성한 결과이지, 의식적 자아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형성한 뒤 수행한 발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생성형 AI의 언어 출력은 언어를 이해하고 전달 의도를 구성한 결과라기보다, 확률에 기반한 통계적 산출물에 가깝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생성형 AI의 언어 수행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고 본다. 생성형 AI의 언어 산출은 대규모 언어모델의 비선형적 구조와 사용자 프롬프트, 학습 데이터, 조정 과정이 결합한 결과로 나타난다. 실제로 국어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생성형 AI가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새로운 표현을 형성하며, 그 형성 원리까지 설명하는 양상이 논의된 바 있다.

여러 이견 가운데에 본 연구에서는 화자의 존재론적 의도와 기능적 의도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존재론적 의도'란 발화 주체가 의식적 자아로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내면적으로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기능적 의도'란 발화 행위가 실제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 채 수행되고, 그 방향성이 청자에게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화자의 기능을 판단할 때에 전통적으로 화자의 내면 의식 자체를 직접 밝히기보다, 발화가 맥락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는지에 관심을 두

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화 의도 역시 화자 내면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 발화가 단순한 언어 산출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방향성을 지닌 행위인가를 밝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화자 지위를 검토할 때에도 존재론적 의도의 유무와 기능적 의도의 수행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존재론적 의미에서 의도를 가진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형 AI의 언어 출력이 기능적 의도의 차원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보인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그 요구를 해석하고, 그 요구에 부합하는 응답을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답변, 설명, 요약, 반박, 수정, 제안과 같은 서로 다른 과제에 따라 출력의 형식과 전개를 체계적으로 달리하며, 후속 요구가 들어오면 앞선 응답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출력 방향을 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언어 산출을 결정하는가가 아니라, 그 산출이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한 전달 방향을 지닌 응답으로 조직되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생성형 AI는 ‘기능적 의도’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발화 의도 문제를 정리하면, 맥락 인식, 청자 지향성, 상호작용 수행의 세 요건의 검토 방향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먼저 맥락 인식은 생성형 AI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관찰 가능하다.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입력에서 요구되는 정보 등을 반영하여 응답을 달리한다. 물론 이러한 맥락 인식은 인간 화자와 같은 작동 원리를 취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입력 조건에 따라 적합한 언어 형식과 정보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차원의 맥락 인식은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청자 지향성 역시 생성형 AI의 언어 행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화용론에서 청자 지향성이란 발화가 언제나 특정 수신자를 전제하고 그에 맞게 조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성형 AI의 모든 응답은 구조적으로 사용자 입력에

대한 반응으로 산출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그에 맞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조정은 생성형 AI가 단순히 문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청자를 전제하고 그 청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발화를 조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곧 생성형 AI의 청자 지향성은 맥락 인식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동일한 원리가 아닐지라도 대화 수행의 구조 안에서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 수행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생성형 AI는 여러 쌍의 대화에서 이전 발화의 내용을 반영하여 후속 응답을 구성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출력을 수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성형 AI의 언어 행위는 고립된 일회적 산출이 아니라, 선행 발화와 후속 발화가 연결되는 상호작용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생성형 AI는 할당된 용량 외의 장기 기억과 안정적인 연속성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며, 상호작용의 범위 역시 주어진 컨텍스트 윈도우와 메모리 용량에 의해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수행의 구조적 차원에서 보면, 생성형 AI는 상호작용적 응답의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생성형 AI는 발화 의도, 맥락 인식, 청자 지향성, 상호작용 수행 능력이라는 네 가지 화자 요건 가운데 후자의 세 가지 요건을 기능적으로 수행하며, 발화 의도 역시 존재론적 의도의 차원에서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기능적 의도의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서 생성형 AI에게 전통적 의미의 ‘화자’ 지위를 그대로 부여하기보다, 화자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범주의 존재로 파악하고 이를 ‘기능적 발화 주체’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생성형 AI를 화자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기능적 요건을 일정하게 충족하면서도 존재론적 조건에서는 화자와 구별되는 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 4.2. 청자 경험과 화자 인식의 검토

앞서 생성형 AI가 발화 의도, 맥락 인식, 청자 지향성,



상호작용 수행 능력이라는 화용론적 요건을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발신자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러나 화용론에서 발화는 화자만의 행위로 완결되지 않으며 어떤 존재가 화자로 기능하는가의 문제 역시 청자의 경험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화자의 지위는 화자가 지닌 내재적 특성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화자는 발화를 산출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청자에게 발화의 주체로 인식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청자가 어떤 존재의 언어를 자신을 향한 발화로 이해하며 그에 맞추어 반응을 조직한다면, 그 존재는 적어도 상호작용의 장 안에서는 화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용론에서 발화가 본질적으로 청자를 전제하는 행위라면, 청자가 그 발화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역시 화자 기능의 성립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생성형 AI의 응답은 기술적으로는 확률적인 언어 생성의 결과이지만, 청자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하나의 발화로 경험된다. 사용자는 생성형 AI의 출력을 단순한 검색 결과처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질문이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그 응답에 반응하여 후속 발화를 구성한다. 이때 생성형 AI와의 대화 교환은 단순한 정보 처리의 절차를 넘어 대화적 상호작용의 성격을 보인다. 바로 이 점에서 생성형 AI의 언어는 청자에게 도구의 출력이라기보다 대화 상대의 발화처럼 인식된다.

이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들은 이용자가 생성형 AI와의 상호작용을 도구적 경험이 아닌 대화로써 경험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 준다.<sup>12</sup> 이는 생성형 AI의 가치가 단순한 정보 처리 효율성에만 있지 않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유사한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도 있음을 뜻한

다. 화용론적 관점에서 청자는 생성형 AI의 출력을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발화로 수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대화의 상대방으로 위치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의인화와 사회적 현존감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관련 연구들은 이용자가 생성형 AI를 인간과 유사한 존재로 지각할수록, 더욱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경험하게 됨을 보여 준다.<sup>13</sup>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청자가 생성형 AI를 단순한 도구로 대하지 않고, 일정한 의도와 반응 가능성을 가진 사회적 행위자처럼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이 형성될 때 생성형 AI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관계의 성격을 띠게 되며, 청자는 그 응답을 하나의 발화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나아가 최근 주목할 현상은 청자가 생성형 AI에 대해 마음이나 의도를 귀속시키는 양상이다. 물론 이러한 양상에서 생성형 AI가 실제로 인간과 같은 내면 의식을 지녔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자가 생성형 AI의 응답에서 감정적 표현이나 친근한 말투와 요소를 근거로 그것을 사회적 행위자로 경험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들은 화용론적으로 보면 곧 청자 지향성과 상호작용 수행 능력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양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자는 생성형 AI의 언어 수행과 반응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어떤 발화 주체가 있다고 경험하며,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생성형 AI를 화자처럼 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앞서 논의한 기능적 발화 주체성은 청자 경험의 차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가 “생성형 AI의 언어 행위는 실제로 화자 기능의 요건을 수행하는가?”를 발신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라면, 지금의 논의는 “그 언어 행위가 청자에게 실제로 화자의 발화처럼 경험되는가?”를 수신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12 유헤리·민영,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챗지피티(ChatGPT) 이용 의도에 대한 연구: 기술 수용 모델과 어포던스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124, 한국방송학회, 2023, 141~169쪽.

13 최지혜·노기영, 「인공지능 챗봇의 의인화가 챗봇과의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유사성과 사회적 현존감의 매개 효과」, 『한국광고홍보학회』 24(4), 한국광고홍보학회, 2022, 521~549쪽.

물론 청자의 경험만으로 생성형 AI의 화자 지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 청자가 생성형 AI를 화자처럼 경험한다는 사실은 생성형 AI가 인간과 동일한 화자의 역할을 한다는 입증이 아니라, 실제 대화 환경에서 화자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화용론의 관심이 화자의 내면적 본질보다 상호작용 속에서의 기능과 구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청자 경험도 화자 설정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4.3. 화자 기능 수행의 조건과 한계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생성형 AI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화자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생성형 AI는 존재론적 의미의 의도를 가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요구를 해석하고 그에 부합하는 응답을 구성하며, 청자를 전제한 상호작용적 응답을 지속적으로 산출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발화 주체로 기술될 수 있다. 또한 청자의 입장에서도 생성형 AI의 응답은 단순한 도구적 출력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발화로 경험되며, 그 과정에서 생성형 AI는 대화의 상대방이자 발화의 주체처럼 인식된다. 결국 생성형 AI의 화자 지위는 ‘발신 측면에서의 기능 수행’과 ‘수신 측면에서의 화자 경험’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은 아무 조건 없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구체적인 조건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성립한다.

첫째,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은 청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정한 발화 의도를 지닌 응답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발화 의도’를 전제한다. 이는 인간 화자와 같은 내면적 의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상황에서 특정한 전달 방향과 기능을 지닌 발화로 조직되는 기능적 의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언어 산출은 단순한 문장 생성이 아니라, 청자를 향한 의사소통적 목적과 기능을 지닌 발화로 수행될 때 화자 기능을 갖는다.

둘째,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은 주어진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여 응답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맥락 인식을 전제한다. 생성형 AI가 이용자의 프롬프트에 따라 상황에 적합한 언어 형식과 정보 배열을 산출한다는 것은, 그 발화가 고립된 문장 생산이 아니라 특정한 상호작용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뜻한다.

셋째,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은 특정 청자를 전제하고 그에 맞게 응답을 조직한다는 점에서 ‘청자 지향성’을 전제한다. 사용자의 프롬프트가 단순한 입력값이 아니라 발화의 상대방으로 기능하고, 생성형 AI의 응답이 그 상대방을 향한 반응으로 구조화될 때 청자 지향성이 성립한다. 이 점에서 생성형 AI의 언어 산출은 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출력이 아니라, 특정 수신자를 향한 발화로 기능한다.

넷째,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은 이용자의 연속된 요구에 따라 자신의 출력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 수행’을 전제한다. 이는 생성형 AI의 언어가 고립된 일회적 산출이 아니라, 선행 발화와 후속 발화가 연결되는 상호작용적 흐름 속에서 기능함을 뜻한다. 따라서 생성형 AI는 대화의 진행에 따라 응답을 조정하고 보완할 수 있을 때 상호작용적 발화의 수행 주체로 이해될 수 있다.

다섯째,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은 청자가 그 응답을 자신을 향한 발화로 경험한다는 점에서 ‘청자의 경험’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은 발신자의 수행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그것을 화자의 발화로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반응하는 수신자의 조건까지 충족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생성형 AI를 인간과 동일한 화자로 규정할 수는 없다.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생성형 AI는 존재론적 의도를 가진다고 확정할 수 없다. 생성형 AI의 응답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방향성을 갖고 조직되지만,

그것이 인간 화자와 같이 고유한 의도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생성형 AI의 상호작용은 원칙적으로 주어진 컨텍스트 윈도우와 메모리 범위 안에서만 유지되며, 인간 화자처럼 장기적 기억과 안정적인 정체성의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는 발화의 책임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생성형 AI의 언어는 학습부터 산출까지 다양한 요소가 적용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생성형 AI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어렵다. 이 점에서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은 인간 화자보다 구조적으로 제한된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생성형 AI의 화자 설정 문제는 전통적인 화자 개념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전통적인 화자 개념은 대체로 인간 개인을 전제하고, 그 개인의 의도, 경험, 정체성 등을 핵심 조건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경우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발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청자에게 화자로 경험되면서도, 동시에 인간과 동일한 존재론적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화자 지위의 여부’와 같은 이분법으로 처리한다면 생성형 AI의 언어 행위가 보여 주는 새로운 양상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생긴다. 생성형 AI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와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고, 생성형 AI의 과급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지금 기존의 인간 화자 개념과 구별되는 화자 범주의 확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능적 발화 주체’라는 새로운 개념은 생성형 AI를 인간과 동일한 화자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는 다른 조건과 한계 속에서도 실제 상호작용 안에서 화자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은 발화 의도, 맥락 인식, 청자 지향, 상호작용 수행과 청자의 경험이라는 조건이 일정하게 충족될 때 제한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화자 기능은 의도의 불확정성, 대화 정보의 연

속성 한계, 발화 책임의 불명확성, 인간 화자와의 비동일성이라는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화자성은 인간 화자 개념의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기능적 화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생성형 AI가 자연어를 통해 인간과 소통하는 현실에 주목하여, 화용론의 관점에서 생성형 AI에게 화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화용론에서 화자의 개념과 구성 요건을 검토하고, 발화 의도, 맥락 인식, 청자 지향성, 상호작용 수행 능력의 네 가지 요건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생성형 AI의 언어 생성 방식과 특성을 살펴보고, 그 언어가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발화와 유사하면서도 생성 원리와 책임 구조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언어 행위와 다른 층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에서는 국어학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언어를 텍스트 분석, 쓰기 수행, 언어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논의해 왔으나 화용론적 화자 기능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인접 분야에서는 AI의 지위를 인간과 도구의 이분법으로 환원하기 어렵다는 논의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 수행을 ‘발화 주체성’의 관점에 더하여 ‘청자 경험’의 관점까지 검토하였다. 발화 주체성의 관점에서는 존재론적 의도와 기능적 의도를 구분하고, 생성형 AI가 존재론적 의도를 가진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능적 의도의 차원에서는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 발화를 수행한다고 보았다. 청자 경험의 관점에서는 이용자가 생성형 AI의 응답을 단순한 도구적 출력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발화로 경험하며, 이러한 수신 측면의 조건이 화자 기능의 성립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논

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이 발화 의도, 맥락 인식, 청자 지향성, 상호작용 수행, 그리고 청자의 경험이라는 각각의 조건 아래 제한적으로 성립하되, 의도의 불확정성, 대화 정보의 연속성 한계, 발화 책임의 불명확성, 인간 화자와의 비동일성이라는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는 점을 밝히고, 생성형 AI를 '기능적 발화 주체'로 규정하였다.

오늘날 생성형 AI는 교육, 연구, 행정, 창작, 일상적 소통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생성형 AI와의 대화를 하나의 일상적 언어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성형 AI에 대한 개개인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그 언어를 단순한 계산 결과로만 접하지 않고 조언, 설명, 판단, 위로, 설득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생성형 AI의 발화를 어떠한 지위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을 주로 텍스트 기반의 상호작용 조건에서 검토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고의 논의는 프롬프트와 응답이 교환되는 문자 중심의 대화 상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나, 최근 생성형 AI는 실시간 음성 입출력과 억양, 반응 속도, 발화 시점까지 포함하는 음성 대화의 형태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화자 기능의 수행 양상이 문자 기반 대화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주로 이용자의 요구에 반응하여 응답을 산출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생성형 AI는 단순한 질의응답의 수준을 넘어, 대화의 흐름 속에서 추가 질문을 제기하거나, 일정한 맥락에서 먼저 상호작용을 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성형 AI의 화자 기능을 단순한 수동적 기능으로 한정하기 어려움을 의미하며, 앞으로는 능동적 발화 개시, 대화 주도성, 상호

작용의 확장 방식까지 포함하여 화자 기능의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성형 AI의 화자에 대한 논의는 시작 단계이며,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권태현,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와 작문 교육의 방향 탐색: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83, 한민족문화학회, 2023.
- 김지연,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지위: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서 어울리기」, 『사회와 이론』 46, 한국이론사회학회, 2023.
- 김형주, 「인공지능 철학 국내연구 동향 분석: 인공지능 철학의 성장점에서」,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 중앙대인공지능인문학연구소, 2018.
- 목광수,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 인정에 근거한 모델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90, 새한철학회, 2017.
- 박광길,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어 연구 과제에 대한 고찰」,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 14,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3.
- 박철우, 「화용론의 현재와 미래」, 『어문논집』 62, 중앙어문학회, 2015.
- 오규설, 「생성형 인공지능이 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ChatGPT는 국어교육의 도구인가, 위협인가」, 『국어교육연구』 82, 국어교육학회, 2023.
- 유혜리·민영,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챗지피티(ChatGPT) 이용 의도에 대한 연구: 기술 수용 모델과 어포던스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124, 한국방송학회, 2023.
- 윤석민, 「화용론의 위상 정립을 위한 몇 가지 문제」, 『한글』 313, 한글학회, 2016.
- 이병규, 「담화기능과 그 체계」, 『반교어문연구』 41, 반교어문학회, 2015.
- 장성민, 「생성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쓰기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가: 포스트 챗GPT 시대의 작문 평가 담론을 위한 예비적 논의」, 『국어교육』 181, 한국어교육학회, 2023.
- 정한대로, 「'생성 AI 화자'의 단어 형성: ChatGPT, Bard, CLOVA X를 대상으로」, 『한말연구』 64, 한말연구학회, 2023.
- 최지혜·노기영, 「인공지능 챗봇의 의인화가 챗봇과의 존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유사성과 사회적 현존감의 매개 효과」, 『한국광고홍보학회』 24(4), 한국광고홍보학회, 2022.

## Abstract

## Is Generative AI a Speaker?

Park, Kwang-Gil |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generative AI can be regarded as a speaker from a pragmatic perspective, focusing on the growing reality of human – AI communication through natural language. It first reviews the concept of speaker in pragmatics and identifies four constitutive criteria: intentionality, context awareness, hearer-directedness, and interactional capacity. It then analyzes the language-generation mechanism of generative AI and related discussions in Korean linguistics and adjacent fields in order to evaluate its speaker-like func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generative AI cannot be recognized as an ontological speaker in the same sense as a human being. However, it does exhibit speaker-like functions at the level of functional intentionality, context sensitivity, hearer orientation, and interactional performance. In addition, users tend to experience AI-generated responses as utterances addressed to themselves rather than as mere informational outputs. On this basis, the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the “functional speech actor” as a limited and conditional form of speakerhood.

**Keywords** Generative AI, LLM Speaker, Pragmatics, functional speech subject, functional speaker, communicative intention, listener experience

이 논문은 2026년 3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4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